

생존을 선택한 인류문명의 전망

도전과 응전의 문명사 펼친 아놀드 토인비의 대화

강기철

비교문명연구소 소장



“나는 역사를 수레바퀴에 비유하는데, 역사는 무의미하게 반복·순환하는 회귀운동만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상항으로 의미 있는 전진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명이 신생을 지향할 때 그것은 역사가 새 지평을 열어간다는 예견입니다.”

아놀드 토인비.

강기철 — 토인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사님과 가상공간에서 만나 인류문명과 한국역사에 대한 박사님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류의 상황은 과거와는 그 차원이 달라졌다고 보이는데요,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토인비 — 역사가 존립할 수 있는 필수조건 가운데 하나는 시행착오의 보장입니다. 생명사·문명사·민족사 그리고 개인의 역사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선되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류가 자멸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에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인류가 소멸하고 나면 시행착오는 의미를 상실합니다. 사망과 악의 도전에 대처하여 생존과 선의 응전을 시도할 때 모든 기본문제들은 그 해답을 새로 찾아야 할 수수께끼로 바뀌게 됩니다.

의미 있는 전진운동으로서의 역사

강기철 — 인류의 종말과 파멸의 비관론이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사님의 《역사의 연구》에서는 확고부동한 낙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토인비 — 도전이 험난하거나 가혹하면 할수록 이에 대처하는 응전이 성공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것은 인류의 자유의지와 창

조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뜻합니다. 그러나 도전이 지나치게 험난하거나 가혹하면 이에 대처하는 응전이 성공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즉 체감의 이치가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류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역사를 수레바퀴에 비유하는데, 역사는 무의미하게 반복·순환하는 회귀운동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상항으로 의미 있는 전진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명은 신생(palingenesis)을 지향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역사의 반복·재생이 아니라 역사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견한 것입니다.

강기철 — 선생님은 일반 세속학자와는 다른 영성학자(靈性學者)이며, 인류의 생존에 대해 헌신적으로 지적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평가한다면, 그 어떤 세속학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 위상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도전과 응전, 은퇴와 복귀, 미메시스(mimesis)와 엘란(elan), 네메시스(nemesis)와 페리페테이아(peripeteia), 혼의 분열과 사회의 해체, 혼효문화와 문화복합체, 고뇌와 신생 등은 모든 세속학자들의 지적 탐구에서 철저히 기피하고 있는 영성(靈性)의 이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박사님의 국제정치에 대한 발언과 역사의 미래에 대

한 예견이 일반 세속학자들의 발언이나 예견을 전적으로 압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토인비 — ‘미래에 살아남다(Survival for future)’, ‘변화와 관습(Change and habit)’, ‘생존을 선택하다(Choose life)’, ‘인류와 어머니되는 지구(Mankind and Mother-earth)’ 등은 인류의 생존에 대한 절박한 사태와 간곡한 권고가 그 지적 작업 밑에 깔려 있는 주제입니다. 인류의 의식구조의 교체와 문화변용(文化變容)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과학적 세계관이 인류를 세뇌시키는 데 300년이 걸렸으며 서구의 사이버문화와 비서구의 천민문화가 지구촌을 덮어버리는 데 소요된 시간도 동일했습니다.

강기철 — 역사는 격변에서 초격변으로 가속도의 운동량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혁명은 가상현실을 구현하며 정보전달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극하고 세계화를 달성해놓았습니다. 따라서 문화변용도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토인비 — 과학·기술·교역 등 세속문화가치의 추구나 천민문화의 백치화와 그 유행은 급속히 세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정체성이나 정신문화의 가치를 좌우하는 우주관이나 종교관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생존과 이해가 문명간의 세계대전화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어요. 인류의 앞날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현재로서는 지울 수가 없지만, 이 위기에 대한 인류규모의 대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대안의 수락여부 및 수락시기의 지속이 비극적 문명의 파멸 및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밀접한 함수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안을 지구촌에서 수락하리라고 봅니다. 당장의 저해요인은 지구촌의 지배계층과 이들에 봉사하고 있는 엘리트층들인데, 결국 이 지배층 전체가 계발적 이기주의의 발상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생존의 대안을 수락할 것으로 봅니다.

세계국가 단계에 들어간 한국문명

강기철 — 한국문화나 한국통일에 대해 개괄적으로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토인비 — 한국문화에 대해 한국 엘리트들, 특히 남북한 학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배경은 하나의 국가나 민족의 역사가 아니고 서구문명·인도문

명·중국문명·이슬람문명 등과 같은 문명이라는 점입니다. 서구문명이나 이슬람문명은 현재 수십개의 국민국가를 거느리고 있는 문명사의 분립국가 단계입니다. 문명의 정치사는 이 단계를 지나면 모든 분립국가를 정치적으로 통일하는 세계국가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때 세계는 문명단위의 심리적 문명세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인도나 중국·한국은 문명사의 세계국가 단계에 들어간 문명들입니다.

강기철 — 현재 지구촌의 국민국가는 180여 개나 되고 중국·인도·남북한도 그 중의 하나를 대표하고 있을 뿐입니다. 역사적 현실이나 일반적 상식, 학문적 관례에서 볼 때, 남북한을 문명의 실체로 파악해야 한다면 더 설득력 있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인비 — 문명사의 구성에는 ‘철학적 동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폼페이의 유물전을 관람할 때, 그것이 약 1900여년 전의 생활상이라는 점을 전혀치지 않는다면 오늘의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상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감정은 오늘의 우리와 매우 비슷하게 철저히 세속화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명의 역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문화변동이나 정치변동에서 직선적으로 통합된 관계적 시대구분에서 해방되어 병렬적인 동시적 시대구분을 해야 합니다. 서구문명이나 이슬람문명이 거느리고 있는 수십개의 국민국가는 한국문명의 삼국시대와 그 이전에 부침한 여러나라들의 열국시대와 철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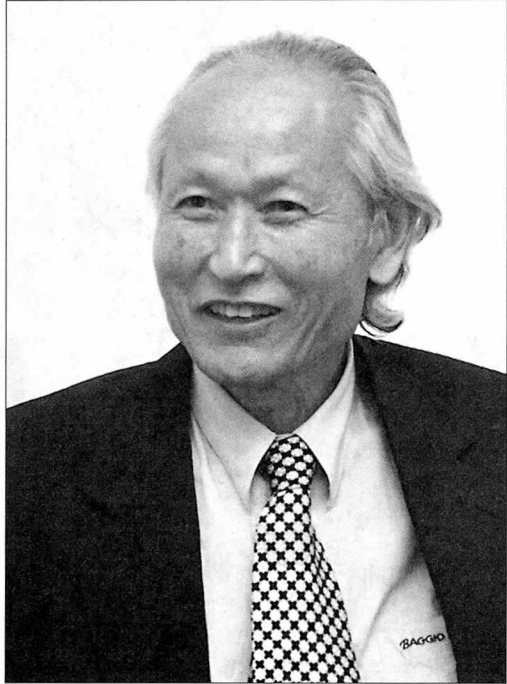
강기철 — 한국의 분단과 통일을 문명사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토인비 — 유구한 한국의 문명사에서 분다면 분단은 잘나에 일어난 역사적 에피소드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분단이 안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인류사와 문화변용의 전환기에 획을 그을 수도 있는 개연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아상태와 남한의 금융위기는 한국전쟁이 한국의 분단을 결정적으로 심화시킨 것에 버금가는 부정적 효과를 한국통일에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약 3세대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한국이 문화중주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창조력이 분출할 경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38선의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전쟁의 성격규

책과 다리



“역사는 격변에서 초격변으로 가속도의 운동량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혁명은 가상현실을 구현하며 정보전달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극하고 세계화를 달성했습니다. 문화변용도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강기철씨.

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패권세력의 대리전이라는 점이 그밖의 여러 전쟁에 대한 성격규명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사회심리적 분석에서 통일을 3세대 이후로 보는 이유는 다음의 비유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꿈을 이루고자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때 이질문화 속으로 들어간 이주민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나서 심리적으로 미국문화에 동화되기 위해서는 3세대가 지나야 합니다. 1세대는 언어도 통하지 않는 문화장벽 속에서 '생활벌레'로 살아가야 하며, 2세대는 고국의 모국어와 영어를 함께 구사하는 문화의 '튀기'로 지냅니다. 3세대에 가서야 완전히 미국문화에 동화됩니다. 왜 이런 비유를 적용해야 할까요? 한국전쟁에서의 동족상잔은 남북한의 사회심리를 양극화했기 때문이며 북한의 기아와 남한의 금융위기는 각기 의지해야 할 외세에 더욱 예측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기철 - 한국문명이 문화중주국으로 세계에 옹비할 수 있다는 개연성은 무엇입니까?

토인비 - 5~6천년 문명의 역사를 살펴보면 문명과 문명의 초극이라는 드라마가 전개됩니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 사회문화적 실체로서 문명과 1대 1로 대응하는 고등종교가 출현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문명을 초극하는 곳은

'문명의 교차로'입니다. 대표적 문명의 교차로가 팔레스티나 지역과 아랄해(러시아 카스피해) 동쪽 평원입니다. 이 두 지역은 주변에서 발흥하는 모든 열강이 유린하고 지나가는 고난의 터전입니다. 이곳에서 대체로 모든 역사적 고등종교가 탄생합니다. 말하자면 문명을 초월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이 출현하는 역사적 전제가 나옵니다. 영혼은 고뇌를 딛고 깨어나며 영혼의 각성은 전례 없는 자유의지와 창조력을 분출시킵니다. 한반도는 또 하나의 문명의 교차로이며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세계사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여러 문명의 각축장으로 화했습니다. 한국이 문화중주국으로서 거론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만일 한민족이 이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다면 한국민족의 창조력은 문명과 고등종교를 동시에 초극 내지 지양하는 영성화의 문화공동체를 창출할 것이고, 인류의 생존과 신생을 약속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가능해지는 기초작업은 이미 이 고난의 터전에서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기철 - 인류문명에 대한 박사님의 거시적 통찰이 인류와 한민족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열어가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